

소양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완주군-LH전북,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협약... 2019년까지 80세대 규모

완주군 소양면 황윤리에 8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16일 완주군청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완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면 황윤리 일원에 2019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80세대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공모사업을 신청한 완주군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8월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단순히 주거 목적을 위해 건립되는 기존 공

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주민과 지자체 LH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시행협약을 통해 116억원(국비 34억원, 기금 34억원, LH 36억원, 군비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양면 황윤리 일원 8,298㎡ 부지에 8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소양면 주민들과 완주군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마을정비 사업들이 추진될 방침이다.

완주군은 다음달 초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17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2018년에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해 하반기 착공함으로써, 2019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사업 이후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분야별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는 등 사업내용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완희 LH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소양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계기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마을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53개 품목 대상... 보험료 농가 부담 20%

진안군은 16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대비하고 소득안정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조수해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품목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일반적인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으로 대형 재난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30%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 과수, 원예작물 등 53개 품목이며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벼는 4월, 사과는 11월,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11월 말에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은 가까운 농협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해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완주군 용진읍, 기관단체장회의

완주군 용진읍은 지난 13일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관·단체별 현안업무 공유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용진읍 기관단체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관단체 간 회의로 새해인사와 함께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테크노밸리 100%분양, 삼봉지구 웰빙시티 조성, 다산목민대상 수상 등 2016년 군정성과 공유와 함께 2017년 군정 및 읍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높은 대화가 이어졌다.

최우식 용진읍장은 "지난 1월 복지허브 추진일환으로 용진파출소(소장 홍성범)와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상담 및 사각지대발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관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용진읍 주민센터 신축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기관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완주군이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본격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기획 프로그램 등에 매년 7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예산은 본 사업 기간인 5년과 추가 지원기간 2년으로 나뉘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완주군은 문화도시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기로 하고, 신청에 앞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위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복합문화공간(누에·홀)에서 16일 개최했다.

완주군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용진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옛

잠종장)과 삼태문화예술촌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 문화예술인·군민·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공연·행사, 다양한 체험거리 등을 개발해 체험형 관광문화벨트 조성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은 "완주군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삼태문화예술촌과 복합문화공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난해 지역문화지구 5위를 차지하는 등 새롭게 주목받는 문화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지역 문화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도시 선정에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군은 현재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만남의 광장) 조성 부지를 절반이상 협의 취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조감도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순조'

부지 절반이상 협의 취득,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 핵심 거점 역할 기대

장수군은 현재 지난해 9월, 국토부 국가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만남의 광장) 조성 부지를 절반이상 협의 취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장수군의 관문인 계남면 호덕리 IC 부근에 국비 23억 9천

만 원, 군비 36억 1천만 원으로 총60억 원이 투입,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완공 시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관광, 지역산업 기반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물론 지역민이 이용하는 만족스러운 활동 기반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만남의 광장은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레드푸드 직판장과 가공체험장, 레스토랑, 이벤트 광장, 생태원 등을 조성, 기존의 농산물유통센터, 오미자 와이너리, 식품클러스터와도 연계해 장수군 농특산물 판매는 물론 체험관광, 직거래 사업 등을 통해 나후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보건의료원 현관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현관에 무인 민원발급기(연중운영)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과 진료를 위해 의료원을 찾은 주민들이 군·읍면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설치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해 등기부등본 등 총 37종에 대한 서류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일을 당하면 서류 갖추는 일도 만만치가 않은데 보건의료원에 민원발급기가 있어 번거롭지 않게 처리를 했다"며 "이용자들 편에서 마음을 써준 것 같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중심 고객만족 민원실' 조성을 위해 군청 민원실 창구 고객용 의자 20개를 교체했으며, 민원실 내 인터넷 사랑방의 복합기(프린터, fax)도 셋으로 교체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농기, 신기술 시범사업 시동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16일 농업신기술협동심의회를 통해 농촌지도 분야 36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작목별 친환경재배 경쟁력 확보를 위해 5개 분야 36개 사업에 총 27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올해에는 국비 확보에 주력해 진안고원 시설하우스 수박 재배단지 조성에 3억, 사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에 2억,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에 2억 등 전년 대비 국비확보율이 152%가 증가했다.

또한 준비를 대폭 투입해 블랙망고 수박 재배단지 조성 시범, 진안고원 사과 원 단위 조성 시범, 시설하우스 차과망 설치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서영화 소장은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 농가를 전년보다 조기 확정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공무원노조 정기총회 개최

무주군 공무원노동조합 정기총회가 16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백원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단체교섭 체결을 통한 당직비 인상과 특별휴가 확대, 복지포인트 인상 등의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 향상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여행 기준안 마련 등 2016년 주요성과를 공유했으며,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확대와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등 2017년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원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며 "소통과 협력, 화합, 연대하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무주군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